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이사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2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이시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12월의 크리스마스



올 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만을 생각해야 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하며,
그분께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분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분은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늘 양식을 먹이셨고,
언제나 죄악의 물결을 독수리 날개 같은 강한 팔로 막으셨으며,
언제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록 우리의 험크러진 발자국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분의 수고한 손길이 있었음이 아니겠습
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흰 눈처럼 평평 쏟아졌으면 좋겠습
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믿음의 발자국은 남겼으
면 좋겠습니다.

2001년 12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이사야 서론

스미스 15트 19쪽 51

본서의 저자는 책의 제목과 동일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1-1; 2:1; 13:1).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남쪽 왕국인 유다의 예언자로, 웃시아 · 요담 아하스 ·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1:4; 6:1)로서, 그분을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나, 나중에는 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41:14,16). 이스라엘은 소경과 병어리된 나라요(6:8,10; 42:7), 황폐케 될 포도원이요(5:1-7), 공의와 의로움을 실천하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5:7; 10:1,2).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분께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으며, 이 심판의 날을 '여호와와 의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14:1,2), 그들을 죄와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또한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35:9; 41:14), 구원하시는(43:3; 49:8)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 될 것입니다(43:2,16-19; 52:10-12).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40:21,22; 48:13) 그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실 그때에 사막에 시내가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32:2).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서 본서에는 평강과 안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11:6-9).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한 왕이 의로움으로 통치하실 것이며(9:7; 32:1), 그로 인해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으로 모여들 것입니다(2:2-4).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압제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11:14; 45:14), 예루살렘은 '여호와와 의 성읍'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42-53장에서 메시아 왕(Messianic King)을 '나의 종' 이

라 칭하셨습니다. 이 용어는 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41:8,9; 42:1).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와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지만(41:2),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52:13-53:12).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시므로 (42:6) 심판에 직면한 나라들이(13-23장)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55:4,5).

결국 이사야서는 '여호와와 종'인 의로운 통치자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아가리라는 그 정점을 향해 예언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성취하신 바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2월,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모든 충현의 성도들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 그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용분해

1.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과 약속(1:1-6:13)
2. 임마누엘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7:1-12:6)
3.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13:1-23:18)
4.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24:1-27:13)
5. 이스라엘의 불신자에 대한 경고(28:1-35:10)
6. 히스기야에 대한 역사적 기록(36:1-39:8)
7.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40:1-66:24)

25장은 여호와와 종말론적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모습을 노래함으로써 선포된 심판의 확실한 성취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절은 의로운 심판자 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6-12절은 하나님의 구원 잔치와 승리의 노래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사하였음이라(1절)”. 이 배경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모세의 신앙고백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사하였음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의 풍요로움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듯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택,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에서 부를 거룩한 기쁨과 찬미의 노래입니다. 전반부 1-19절은 여호와와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성에 들어갈 자들의 소개와 그들이 부를 구원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0, 21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악인의 심판이 있어야 함으로 밀실에서 기다리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 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앞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 하나이다마는”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올지라도 그 백성이 모른다는 것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인간의 패역한 모습을 지적하는 주님의 꾸짖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 할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성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부끄러움이 될까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성에 감격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열성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열성적인 사랑을 알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제목 /

27장은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징계를 통해 거룩케 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사야 5장에 이사야의 유명한 포도원 노래라 하는 것에 연속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3절 “나 여호와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든지 맺지 못하든지 그 주인은 그것을 간수하고 물을 주며 아무도 상해하지 못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백성을 향하여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깊은 사랑이요 아픈 사랑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돌보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거기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포도나무, 혹은 기대에 응해 주지 않는 포도원을 돌보아 주며 비료를 주는 것은 헛된 일처럼 보이며 염려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아픔과 수고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포도원지기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기도 제목 / ① 포도원지기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8장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 및 위로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1-6절은 사마리아의 교만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회복을, 7-22절은 죄에 빠진 남 유다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29절은 농부의 비유를 통한 위로의 교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초반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참된 안정과 평화는 세상의 강한 것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후반절을 보면 “그것을 믿는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쉽게 해석하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세상사에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좌우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빌4:12)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인하시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복을 알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와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며 연단이라는 것, 9-16절은 남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외식에 대한 책망을 기록합니다. 끝으로 17-24절은 선민과 하나님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것은 남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물론 북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 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과 외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형식적이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십일조를 내고 직분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면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외식적이고 말뿐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정도가 “회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마12:34).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먼저 전반부 1-17절에서, 당시 유다왕 히스기야는 앗수르왕 사르곤 2세가 죽은 후 팔레스틴에 대한 통치가 느슨한 틈을 타서 앗수르의 땅에서 벗어나고자 애굽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것이 비 신앙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18-26절은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전반부와는 달리 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유다 백성에 대하여 응답과 약속을 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27-33절은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한 앗수르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27-29절은 앗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백성들의 기쁨이 잘 묘사되었으며, 30-33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하는 앗수르의 비참한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만 말미암는다는 것과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의 것을 의뢰해서는 안되며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기도 제목 / ①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30장의 반복이자 축소판입니다. 이처럼 30장에서 지적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복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 유다 백성들의 자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3절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1절). 그들은 세계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서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권력에 의지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4-9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약속과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과 보호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사실(4,5절)과 회개의 촉구(6,7절) 및 앗수르의 멸망도 오직 여호와와 절대 권능에 의해서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8,9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공훈과 자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는 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결코 꺼려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참다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요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구주로 고백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롬10:9,10).

참다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의로운 왕의 통치의 양면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1-4절은 의로운 왕을 보고자 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왕이 광풍과 폭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8절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어리석고 꾀술한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심판자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9-14절은 이방 여인들과 같이 온갖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자신들의 궁극적 멸망에 대해 아무 염려없이 살아가는 자들로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육신적으로 안일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거 있습니다. 15-20절은 한 의로운 왕 메시아 왕국에 대한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메시아 왕국은 꾀술과 간사, 안일과 사치가 가득한 이사야 당시의 유다 왕국, 나아가 사단의 공중의 권세잡고 있는 현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는 한 의로운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치밀함과 계획하신 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적인 성실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한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의 피흘리심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엡5:19,20).

한 의로운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안일에 빠진 나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써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서 이사야는 B.C. 701년 앓수르 왕 산헤림이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 시기에 유다가 당할 위기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유다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대적 앓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대와 속임을 일삼는 대적에 대한 저주를 선언합니다(1절). 그리고 난 후 그 대적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2절) 곧이어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대적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확실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3-6절). 마지막 부분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아직 그 응답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으나 마치 이미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을 확신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7-9절은 대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남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리며, 10-16절은 그 대적을 멸망시킬 것이요 오직 의를 행하는 자들만이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적을 멸하시는 것을 보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14절). 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17-19절) 견고한 안정과 평화를 회복할 것(20-21절)이며, 다시금 은혜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 대적에게서 승리를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될 것(22-24절)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극복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번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히 12:11).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인내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제 32, 33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현재는 비록 범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의로운 나라로 만드시고 메시아 왕국을 도래시킬 것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이어 본문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여호와와 심판과 구원이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멸망의 심판을,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혈통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8-15절은 그 심판 후의 비참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던 에돔도 결국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16-17절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예언의 성취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필연적인 성취를 확신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확신은 열방의 흥망성쇠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5장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 선민이 누릴 구원의 혜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환희요 풍성함이며 영광스런 나라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아마도 이런 곳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곳은 누가 가는 것일까? 8절과 9절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고 행할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만, 선한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가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과 신앙은 없지만 훌륭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과 어느 쪽이 더 위대하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속죄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공지를 지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참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장차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회복의 날에 그 대로를 걸을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 구속함을 얻은 자라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신자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6장은 앓수르왕 산헤립의 예루살렘 침공 사실과 산헤립이 남-유다에게 그의 사자 랍사게를 보내서 남 유다 사신과 그의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랍사게의 조롱 4-5절 입니다.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죽히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누구를 대적하며 누구를 의뢰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의심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의 싸움이 없는 신앙이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끊임없이 미혹되고 동요되는 것으로 확고부동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5절의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라는 것은 냉소적이며 날카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입술에 붙은 말에 지나지 않는거요? 바로 우리의 삶을 꼬집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네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 말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뢰한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7장은 앓수르의 침공으로 어려운 위기에 직면한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축복으로 앓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3절 말씀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입니다.

36장을 보면 앓수르의 왕 산헤립의 사자 랍사게가 예루살렘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다 왕 히스기야는 옷을 찢어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와의 전으로 갔습니다(1절). 그리고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3절)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나약함은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이것은 현재 남은 유다의 힘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 해결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자신의 연약함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기도 제목 / ① 연약한 자를 돌아보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8절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과 기도로 회복 받는 내용입니다. 후반부 9-22절은 생명 연장에 대한 히스기야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 전반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은 병이든 히스기야를 방문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에 대해 2-3절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대한 절박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4-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고 앗수르로부터의 보호도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하스의 일영표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 물러나게 한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의 인생이 다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일의 삶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딤후 4: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며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된 직후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고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 왕의 사자가 히스기야의 폐유를 축하하러 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반 앗수르의 맹주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해 앗수르로부터 해방을 예상한 히스기야는 그 사자를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 있는 전 보물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를 자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나라와 우리나라는 형제라고 하는 친분을 표시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주님에게 합당치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위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5-6 절) 7절에서는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 받은 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15년의 생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로 생각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한 태도를 취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발전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 40장은 구원의 소망에 대해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본 장은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1절은 포로 생활로부터 유다를 해방하시는 분으로, 12-31절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9절 말씀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용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위로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직 포로로서 해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엄청난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엡 2: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빌 3: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이 알아야 할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주신 것은 알지 못하고 현실에 상황만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빈곤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죄악의 사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우리는 9절 후반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직전 시기로 바사왕 고레스의 바벨론 제국 정복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 나타난 여호와와의 위대하심과 선민에 대한 확실한 구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 열국을 심판하실 이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외치는 것처럼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이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초개같이 하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쫓아서… 지났나니”. 여기에서 동방 사람은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으로 장차 바벨론을 정복하므로 당시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키고 들어쓴 사람이 누구나 묻습니다. 즉 고레스 왕의 막강함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그니라”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시시각각 적합한 인물들을 불러 쓰시는 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그의 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까지는 종의 노래의 첫 부분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나타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의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서 참으로 인간이 걸어야 할 길, 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길 등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공의를 베풀 것을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한편 3절 전반부에서 ‘상한 갈대’, ‘꺾져 가는 등불’은 몹시도 완악하고 패역하며 혹은 도저히 이찌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시는 하나님!” 그분은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우리에게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 4절에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구한 세월이 지날지라도 쇠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낙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연약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42장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42장에서 여호와와 은총과 권능을 체험하고서도 순종함이 없는 우매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 책망하던 강경한 어조를 바꾸어 부드럽고 감미로운 어조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은 유명한 성구로서 우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라는 구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서 희망도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들의 탓임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아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두려워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 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괴롭히는 자, 자신에게 폐만 끼치는 자에 대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멋대로이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보호와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43장보다 더 확장 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절 후반절 말씀인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 말라”입니다. 44장 1절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들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여수론아 두려워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수론이란 말은 “정직한자”, “공의로운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여수론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전장의 끝 부분 25-28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영광이 땅에 떨어졌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의 환경은 포로된 환경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택함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어지러운 즉 인간의 생사문제, 혹은 실패와 성공 등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합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레스 왕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적 사실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 이전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유다가 다시 고레스 왕 때에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도 예언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의 등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전반부와(1-13절), 만방의 구원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14-25절). 또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방 역사까지 간섭하셔서 고레스를 등장시키겠다는 예언과(1-8절),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에 대한 교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9-13절). 그리고 후반부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세계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14-19절),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에 대한 내용으로(20-25절)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해마다 연말이면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은 구원과 멸망이라는 두 가지 결과 외에는 없으며,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 이사야의 간곡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력한 이방 신들에게 나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1-7절에서 우상숭배의 무익함과 모순됨을 거듭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8-13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믿을 만한 분이심을 입증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시 33:9). 포로 된 자들로서는 절망에서 벗어나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도움과 구조를 경험하게 될 것을 거듭거듭 그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이들이 의에서 멀리 떠난 상태, 곧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는 오로지 믿음이 그들에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내 생각, 내 주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처음 구원받을 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벨론은 천문학과 점성술 지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사술과 우상을 의지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 즉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의 처절한 상황을 구체적이지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바벨론을 처녀에 비유하여 이방민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볼 수 있으며, 5-8절은 하나님이 몸소 자기 백성을 적에게 넘기셨고 자기 기업을 저버리셨다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을 고발하는 까닭을 예루살렘 파괴에서 찾지 않고, 독재와 거만함과 또 사로 잡혀온 자들을 잔인하게 다룬데서 찾고 있습니다. 9-15절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으므로 그 어떠한 마술의 방법으로도 그 멸망을 돌이키지 못하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만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진정으로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 장의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물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허망한 풍속과 하나님의 큰사랑 중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사술에 속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②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은 성탄절 전야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된 메시야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좇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나 이사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한 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무조건적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던 것과는 달리, 끝내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한 마지막 경고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측면을 말한 것이며, 인간 편에서 회개를 바탕으로 삼아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적용된 말입니다. 죄인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아무나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장은 연설문 형식으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시며(9-11절),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바벨로의 멸망을 재천명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12-15절), 최후의 권면과 경고(16-22절) 등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길 원합니다.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예수의 오심을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부르심의 목적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여호와와 종의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호와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를 종으로 기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세워놓은 제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 만들어 버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가 무척이나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참된 성탄의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7절).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3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사야 5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코 여호와와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의 종 메시아 고난의 사역에 대해 예언합니다.

먼저 1-3절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모든 재앙을 자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잘못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4-9절은 여호와와 종 메시아의 독백으로서 그 자신이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여호와와 도우심으로 그 사역을 잘 수행하리라는 확신이 가득한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와 종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0-11절은 신실한 자에게는 빛이 있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와 신실한 종은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더욱 영화로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은 하나님의 확실한 도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여호와와 종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과거에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실망을 당하지 않게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사야 51장은 세 번의 '들으라' (혹 주의하라:1,4,7절)는 명령과 세 번의 '깨어라' (9,17,52:1)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1-3절), 내 백성에게(4-6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의 '깨어라'는 "여호와와 팔이여(9-16절), 예루살렘이여(17-23), 시온이여(52:1-6절)"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의 "들으라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8절)이 영영히 있어 폐하여지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내 백성, 내 나라, 의를 행하는 자들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7절) 생각하고 눈을 들어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듯이 시온을 위로하고 율법을 통해서 만민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9-16절까지의 "깨어라"의 명령은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여호와와 팔의 능력을 깨닫게 해 달라는 것이며, 17-23에서는 예루살렘이 일어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중요한 원리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깨어, 있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 짓지 못하는 자(10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② 농여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앞의 51장의 내용과 연결된 것으로 선민 구원의 확실성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이 바벨론 포로 이전 혹은 포로 생활의 배경으로 주어진 반면,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 순간을 배경으로 하여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1,2절에서는 곤고한 포로생활에 찌든 이스라엘 선민을 향하여 포로의 사슬을 끊고 떨쳐 일어설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3-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선민을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10절에서는 선민의 해방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감격적인 찬양 장면을 마치 실제 상황처럼 예언하며, 11-12절에서는 죄로 얼룩진 바벨론을 속히 떠나 여호와와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종말에 사는 성도들은 특히 부정적인 것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교회에 가장 무서운 적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못한 교회는 참 교회의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의 거룩한 교회의 노래가 이 세상에 울려 나도록 교회의 본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주소서. ② 총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난의 종의 노래는 성경에서 '지성소' (Holy of Holies)라고 불리 우 리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2장 이후로 '여호와와 종'에 대 한 언급은 더 이상 없는 것을 보아도 바로 여호와와 종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고난의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 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신약은 증거합니다(요 12:38; 마 8:17; 행 8:32-33; 벰전 2:22; 눅 23:13).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종, '나의 의로운 종' 이라고 불리며,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속건 제물이 되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3:1-6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버림받아 멸시를 받고 싫어 버린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고 절고를 아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7-9 절은 종의 수난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10-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과 죽음의 보상의 문제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헌신의 삶을 사셨으며 (6,8,11),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된 고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1-8절은 첫째 여호와와 네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자이고 자신이 온 세상의 하나님 이라며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바로 구속자 여호와와 버림받은 자를 모 으며 진노에서 영원한 자비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9-17절은 노아 홍수의 맹세같이 다시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산과 작은 산이 옮겨져 도 나의 인자와 '평화와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으시는데 이는 여호와와 긍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죄와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즉 '오직 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신앙은 개혁주의의 핵심적인 교리입 니다(롬1:17; 갈3:11; 히10:38).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사탄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의 죄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홀 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하 나님의 의를 갈망하였습니다. 이 갈망하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의 의인 것입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기도 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 으실 것이며" (54:5).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 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와 말이니라" (54:7,8)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은 믿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가정 기도제목 /

오늘은 200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를 맞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과 구원이 있는 자리로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만민을 초청하는 내용이며, 6-7절은 초청 받은 자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8-13절은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죄와 구원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을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초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 만민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천국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그 초청을 받아들여기로 결단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에는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새 언약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구원잔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 11:28).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의 행동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진실로 영혼을 돌보시는 이가 누구뇨?

찬송 / 447장(오 신실하신 주)

본문 / 요일 4:7~12

들어가면서(서론)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세상의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물론 마귀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귀조차도 진리가 아닌 불의를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아주 非성경적이며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신자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에 의해 형성된 사랑의 개념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주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요한일서 4장7절~12절을 읽으시고 난 뒤에 본문을 정리하십시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① 7절~8절 -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

② 9절 -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목적

③ 10절 - 사랑의 기원과 그 사랑을 위해 치러진 대가

④ 11절 - 사랑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⑤ 12절 - 사랑의 신비(연합)

2. 다음 주일 설교(‘진실로 영혼을 돌보시는 이가 누구뇨?’)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②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을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주제는 부모를 진정으로 돌보는 문제입니다. 부모 공경에 있어서 유교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의 차이를 말해보십시오.

③ 인간의 돌봄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겔 33:11, 눅 15:10 참조)

④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벧후 3:9을 참조)

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계 22:17, 요 16:7~8 참조)

⑥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마 11:28 참조)

⑦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⑧ 우리는 다른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나가면서(결론)

1.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각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셨고(과거), 지금도 어떻게 돌보시며(현재), 앞으로도 어떻게 돌보실 것이라고(미래) 생각하십니까?

2.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것' 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34~46을 읽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돌보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제목:

본문: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제 2 과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찬송 / 544장(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본문 / 고후 8:1~9

들어가면서(서론)

요즘 '크리스마스' 하면 즉시로 우리들 마음에 새겨진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흰 눈, 산타클로스와 눈썰매, 선물, 즐거움, 파티, 기쁨,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까지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구주의 탄생과 연관시킬 뿐, 막상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에 다시 찾아온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구제와 그리스도의 가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낮아지심)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즉,

교회의 구제를 막연하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교회의 구제를 그리스도의 가난과 연관된 영적인 의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의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 실천 방법도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가난해지도록 하십시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고린도후서 8장1절~9절을 읽으시고 난 뒤에 본문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9절에 집중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① 1절~2절 - 마게도냐 교회들의 구제하는 모습은?

② 3절~5절 - 마게도냐 교회의 구제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③ 6절 -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해야 할 사역은?

④ 7절 - 구제헌금에 고린도 교회를 동참시키는 이유는?

⑤ 8절 - 구제헌금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은?

⑥ 9절 - 구제헌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의 관계는?

(호칭) 사도 바울

2. 다음 주일 설교('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는 각각 어떤 시각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록했습니까?

②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요 1:3)

③ 생애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의 가난해지신 모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설교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④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의 옷을 입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10:15, 18 참조)

⑤ 그리스도의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부요함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⑥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롬 6:23, 5:5, 18, 고전 15:57 참조)

나가면서(결론)

1.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구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구제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난해지심)와 연관시켜 정리해 보십시오.

① 구제는 왜 해야 합니까?

②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③ 구제는 누가 해야 합니까?

2.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모하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실로 부요케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구, 친척, 형제, 부모님?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극히 낮은 자인 우리를 위해 구원의 부요함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이고 물질적인 구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목:

Итого:

- 50 -

제 3 과

사가랴의 예언

찬송 /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본문 / 눅 1:68~798

들어가면서(서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돌아오는 성탄절이 흥분되는 이유가 단지 공휴일이며 종교적으로 행복한 절기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가랴의 예언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이 없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던 그의 입술을 통한 예언은 성탄절에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는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이천 년 전에 들려주었던 예언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진정으로 그가 예언했던 돌은
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만나보도록 하십시
오. 그분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찬송이
되도록 묵상하십시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누가복음
1:68절~79절을 읽으시고 난 뒤에 본문을 정리하십시오).

① 68절~69절 -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② 70절~71절 -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원은?

③ 72절~75절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은?

④ 76절~79절 -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하실 일들은?

2. 다음 주일 설교(‘사가랴의 예언’)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사가랴에게 임한 은총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② 사가랴가 깨달은 언약은 무엇입니까?(17절)

(호봉) (사 49절)

③ 마리아에게 임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31절~38절)

(오) (사 49절) (사 49절) (사 49절) (사 49절) (사 49절)

④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했습니까?(76절~77절)

⑤ 둘은 아침해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79절)

(사 49절) (사 49절) (사 49절) (사 49절) (사 49절)

⑥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요일 1:7)

(사 49절) (사 49절) (사 49절) (사 49절) (사 49절)

⑦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롬 3:23, 6:23과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
- ⑧ 성탄과 연관된 메시지로써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가면서(결론)

1. 사가라의 예언에는 '구원'과 관련된 말들이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 표현들을 돌아가면서 찾고 말해보십시오.
2. 사가라의 예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세례 요한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정리해 보십시오. 또 다른 분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제 4 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

찬송 / 231장(주가 맡긴 모든 역사)

본문 / 롬 14:11~12

들어가면서(서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신학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제시한 후에, 그 복음과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와도 전혀 충돌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2).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형제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제시하는 또 한 가지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헬라로마의 세계에서 '심판대'와 '심판'은 아주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주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23절에 나타난 종말의 심판을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과를 배우면서 형제에 대한 판단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로마서 14:10절~12절을 읽으시고 난 뒤에 본문을 정리하십시오).

① 10절 -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인가?

② 11절 - 형제 판단과 관련하여 미래에 벌어질 일은 무엇인가?

③ 12절 - 형제 판단에 대한 성경의 대안은 무엇인가?

2. 다음 주일 설교(‘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본문 11절에 나타난 ‘모든’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②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고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③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만남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고후 5:10, 갈 6:7 참조)

④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준비와 관계해서 생각해 볼 때, 잘못된 준비는 무엇입니까?

⑤ 예수와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롬 5:8, 10:9, 10:13)

나가면서(결론)

1.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떠한 경고가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① 마 7:1,2 -

② 눅 6:37 -

③ 롬 2:13 -

④ 롬 1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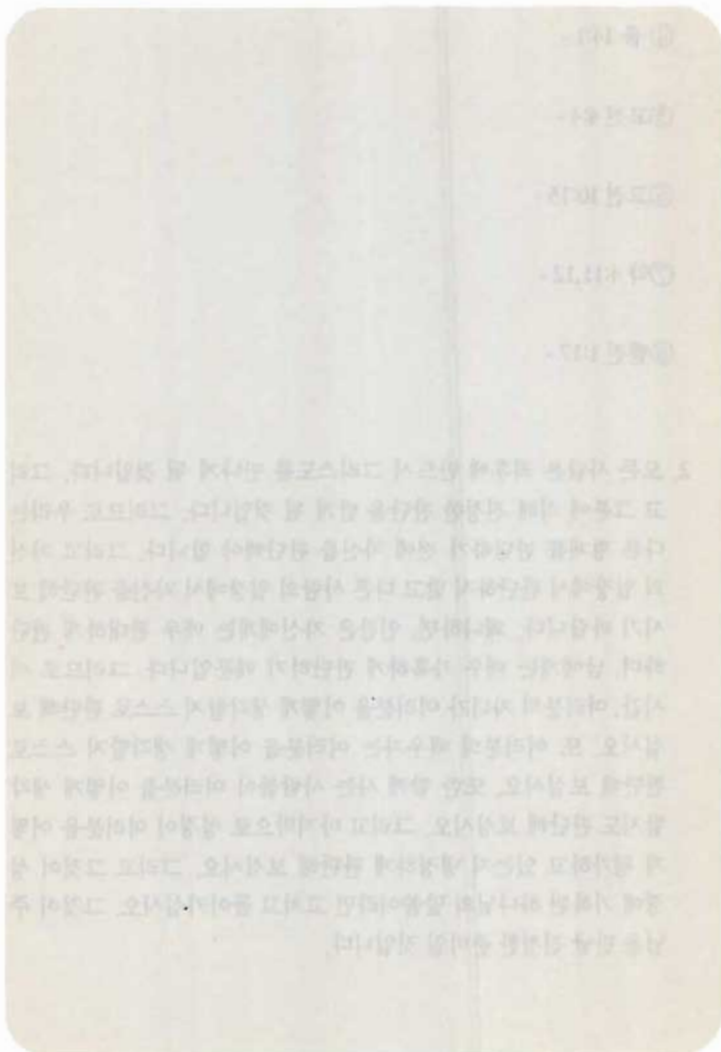
⑤ 고전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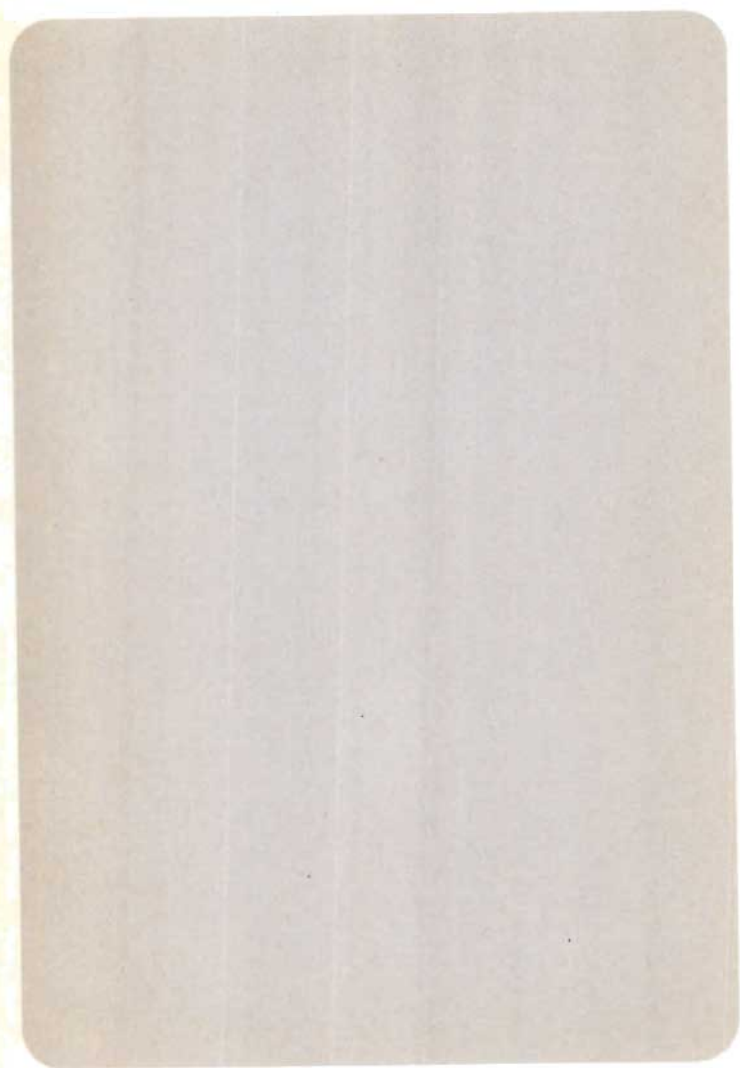
⑥ 고전 10:15 -

⑦ 약 4:11,12 -

⑧ 벧전 1:17 -

2. 모든 사람은 최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 진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판단하며, 남에게는 매우 가혹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또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치고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만날 진정한 준비일 것입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0 과

복음에 합당한 삶

찬 송 / 102장
읽을 말씀 / 빌 1:27-30
외울 말씀 / 빌 1:27

다음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 빌 1:28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병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병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 빌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 빌 1:30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삶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히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1. 다음의 글을 읽어 보고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십시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 가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그 일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리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당신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 2: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
2. 성경에서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행 2:14)

행 2: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기도하던 각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각 사람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은 물론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무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12제자가 하나가 되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일심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시는데 그들은 서로 누가 큰가를 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들로 강력하게 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5000명이 주님께 더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자 하는 당신의 2002년을 향한 결단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 두려워 하지 않는 것

빌 1:28 아무 일에도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징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빌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빌 1: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빌 1:24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 1: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3.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지를 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보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빌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딤후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딤후 1:8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4.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찾으십니다. 좌절한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핍박하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수고롭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 1:24을 통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2002년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
5. 각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시고 기도제목을 한두 가지 나누시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총현의 만나 · 2001년 12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김용덕(1-5일), 류병희(6-10일), 김용덕(11-20일) 목사
고광환(21-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총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